

베리계의 왕 “블랙커런트(BLACK CURRANT)”



장창환 연합회장
광주·전남연합회

블랙커런트는 범의귀과의 다년생관목이다. 세계적으로는 유럽의 폴란드, 북아메리카, 뉴질랜드, 중국 등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으나, 재배면적, 과일생산량, 가공능력 면에서는 유럽이 앞서고 있다.

블랙커런트는 새싹의 생장량은 약 29cm이고 정식 후 이듬해부터 개화하고 열매를 맺는다. 만 2년생 묘목을 식재할 경우 열매수확을 할 수 있다. 대부분 한 꽃눈에 두 개의 과일송이가 있고 하나의 과일송이에 7개 이상의 열매가 열리며, 6월 중순~7월 상순 사이 과일이 성숙하고 숙기가 일치하여 한 번에 수확이 가능하다.

블랙커런트 과일은 당, 레몬산, 타르타르산, 사과산, 비타민 등 영양물질이 풍부하고, 오렌지보다 비타민C를 4배가량 많이 함유하고 있어 천연비타민C 원료로 생산·가공한다. 또한 눈에 좋은 안토시안 성분이 월등히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. 비타민A, 비타민B, 미량미네랄, 폴리페놀 함량이 타 과실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을 뿐 아니라 리놀렌산도 함유되어 있어 블랙커런트를 베리 중의 왕이라 한다.

과즙은 자홍색이고 투명하기 때문에 주스, 과일주, 잼, 와인, 식초, 아이스크림 등을 만들 수 있다. 과일 중량은 1.5~2g 정도이다. 가용성 건물량은 11.36%이고 총 당량은 8.41%이다. 적정한 A 함량은 2.37%, An 함량은 0.0795mg/kg,

Vc 함량은 1593.2mg/kg이다. 생산량은 1,000㎡ 당 1.5~2.0톤으로 많다. 블랙커런트 과일은 신맛과 단맛이 조화를 이루어 생과식용과 가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블랙커런트 나무의 성장에는 온도, 토질, 수분, 일조량 등 요구조건이 있다.



▲ 블랙커런트 나무는 점질성 토양에서도 배수가 잘되며, 퇴비 또는 약간의 피트모스를 사용하여 재배할 수 있다.

- 온도 : 내한성이 있지만 어떤 품종은 야생나무보다 내한성이 약하다. 일 평균온도가 0℃가 될 때 나무가 싹이 트기 시작하고, 어린잎은 -4℃까지 견뎌낸다. 6℃될 때 새 가지가 생키며, 17~20℃는 성장하기 적절한 온도이다.
- 토질 : 비옥하고 중성 혹은 약간 산성, 흑토(黑

土), 마사토, 부식(腐植)토 등 토양에서 잘 자란다.

- 수분 : 싹트는 것과 개화, 열매의 맺음, 열매의 팽창 등 성장에 많은 수분이 요구된다. 뿌리의 분포가 얕아서(천근성) 또는 잎이 많고 크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. 수분이 부족하면 쉽게 낙화(落花), 낙과(落果), 꽃눈 발육불량 등을 초래할 수 있다.
- 일조량 : 빛을 좋아하는 식물로 개화와 열매 맺는 기간에 충분한 일조량이 요구되며, 일조가 부족할 경우 낙화, 낙과, 열매채색부족 등이 나타날 수 있다. 숙기도 연장된다.

블랙커런트 식재

식재 시 주의할 점은 실생묘가 아닌 삽목묘를 식재해야 한다. 실생묘일 경우 과일이 퇴화하고 늦게 결실을 맺는다.

- 재배할 적지 : 토양이 비옥하고 토질이 푸석하며 유기물질 함량이 높고 중성 또는 약산성이면 좋다. 지하수위는 1.5m 이상이고, 평지이면 최적이지만 산경사지도 재배가 가능하며 토심이 깊은 땅이 좋다.
- 식재 시기 : 낙엽이 진 뒤 늦가을에 땅이 얼기 전에 식재한다. 식재 후 바로 관수하며 흙으로 묻어야 봄이 되면 나무가 일찍 싹이 트고 건강하게 자란다. 초봄에는 얼었던 흙이 녹기만하면 싹이 트기 전에 식재한다. 이때 토양에 습기가 있으면 활착률이 높다.
- 정식 열 간격 : 빠른 시일에 과일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묘목 2주 혹 3주씩 한 구덩이에 심어 블랙커런트 나무 가지의 무더기를 형성한다. 묘목 3주씩 심을 때 무더기의 거리는 1.5m이고 열 간격은 2m로 한다. 2주씩 심을

때 열을 따라 사선으로 심고 무더기의 간격은 1.2m이고 열 간격은 1.8m이다.

- 정식방법 : 먼저 땅을 깊이 갈고 40×40cm되는 구덩이를 파서 구덩이 안에 약 10kg 정도 잘 부숙된 퇴비를 넣고 한 구덩이에 묘목 3주를 삼각형으로 심는다. 3주의 묘목간격은 15~20cm이며, 묘목이 원래 심겨져 있던 깊이보다 5~10cm 더 깊게 심는다. 구덩이를 흙으로 메울 때 묘목뿌리가 휘지 않게 잘 펴지도록 나무를 위로 약간 들어올린다. 새로 메운 흙을 발로 밟고 그 후 물을 충분히 준다.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지면 위로 20cm 정도 남겨놓고 자르고 바로 열매를 따려면 30cm 정도 남겨놓고 자른다.

○ 경지관리

- 시비 : 블랙커런트 나무 성장에는 비료소요량이 많다. 시비 후엔 제때 제초해야 한다.
 - 기초비료 : 주로 10월 초·중순 또는 봄에 싹트기 전(흙을 깊이 갈면서 시비함) 기비(基肥)를 준다.
 - 기초비료 시비량 : 과수원의 나무가 어릴 때 숙성된 퇴비를 1ha 당 14,000~60,000kg의 퇴비가 필요하다.
 - 기비(基肥) 시비방법 : 뿌리에서 30cm 거리를 두고 환상 골을 파서 골 안에 시비하며 바로 관수한다. 한번 퇴비를 시비 후 2년에 걸쳐 다시 퇴비로 시비한다. 환상 골도 점차 더 넓게 또는 뿌리에서 더 먼 거리를 두어야 한다.
 - 추비 : 5월 하순~6월 상순 사이 나무뿌리 부근에 작은 골을 파서 한 그루당 질소비료 50~150g를 시비한다. 8월 상순한 그루당 PK비료 50~100g를 시비한다. 시비 후 충분히 관수한다.
 - 옆면시비 : 5월 중순~6월 중순에 질소비

- 료 또는 7월 후 PK비료로 잎면에 분무한다. 질소비료는 주로 요소비료이고 0.3~0.4%로 희석한 요소비료로 2~3번(매번 20일 간격으로) 잎면에 분무한다. PK비료는 주로 인산이수소칼륨(MKP)이다. 0.5~1% 농도로 희석하여 잎면에 2번씩(20일 간격) 분무한다.
- 관수 : 인공관수가 별로 필요치 않으나 다음 시기에 관수하면 좋다.
 - 관수시기 : 5월 초순 열매 맺기 위해, 11월 중·하순 겨울대비, 그 외 가물면 토양습도의 정도에 따라 관수한다.
 - 간작 : 1~3년생 과수의 열간 사이에 경제작물을 심을 수 있다. 땅콩, 감자, 대파 등 낮고 또 땅의 소비량이 많지 않은 작물을 선택하며 십자화과 작물은 피한다. 심는 작물은 블랙커런트 나무부터 30cm의 거리를 둔다.
 - 제초 : 1년에 2~3번 흙을 부수어 부드럽게 하고 제초한다. 제초제를 사용할 경우 풀이 어느 정도 자라난 다음 제초제를 뿌리며 풀의 열매가 익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.
- 전정 : 정식하는 해부터 전정한다. 나뭇가지의 3~4개 싹을 보존하고 과감하게 전정한다. 포트묘일 경우 윗부분 약간만 전정한다.
 - 어린과수의 전정 : 어린나무의 경우 건장한 맨 아래 성장가지 5~7개를 남기고 나머지는 아래 기부부터 잘라버린다. 4년 된 나무는 한 그루에 20개 연령이 다른 대형 골간가지를 남기고 전정한다. 빛의 일조를 충분히 받도록 봄에 불필요하는 가지·싹 혹 성장기의 과도한 성장가지를 제거해 버린다. 더 건장한 새로운 성장가지는 보존한다.
 - 성숙한 과수 전정 : 성숙한 나무는 골간

가지를 때에 따라 가급적 갱신하여 건장하게 하며, 병충해 입은 가지, 약하고 가는 가지, 밀집한 난가지, 늘어진 가지들은 다 잘라 버려야 한다. 6~7년 된 것은 상태를 보아가면서 잘라내고 새로 올라온 것을 남겨놓는다.

- 월동 : 블랙커런트 품종은 내한성이 강하여 다른 품종처럼 복잡한 월동작업이 불필요하다.

블랙커런트와 블루베리의 비교

- 블루베리 재배 시 피트모스를 사용해야 되나 블랙커런트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적게 든다.
- 블루베리는 재배 시 토양의 산성상태를 계속 유지해주어야 하나 블랙커런트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. 또한 블랙커런트는 블루베리에 비해 토양 적응력이 아주 우수하여 재배하기가 훨씬 수월하다.
- 블루베리는 5년째부터 수확할 수 있지만 블랙커런트 실생묘가 아닌 삽목묘일 경우 만 2년생 묘목을 식재하면 경제성 있는 수확이 가능하다.
- 블랙커런트의 비타민C, 안토시안 등 영양성분 함량이 블루베리보다 더 많아 블랙커런트를 베리들 중 왕이라 한다.
- 블랙커런트를 사용하여 천연비타민C를 생산할 수 있다.
- 블루베리보다 재배하기 훨씬 수월하여 블루베리의 절반도 안되는 노력과 경비로 재배할 수 있다. ㉞

〈연락처 : 광주·전라남도연합회장
장창환 010-9884-7908〉